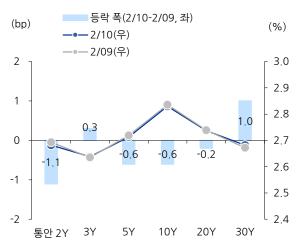
Eugene's FICC Update





Fixed Income (단위: %						
		2/10일	1D	1W	YTD	
국내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638%	0.3	6.6	4.2	
	한국 국고채 10년물	2.830%	-0.6	-0.5	-2.5	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9.2	20.1	26.3	25.9	
	3년 국채 선물(KTB)	106.73	4.0	-20.0	8.0	
	10년 국채선물(LKTB)	118.46	2.0	-7.0	154.0	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274%	-1.8	2.4	3.4	
	미국채 10년물	4.498%	0.1	-6.1	-8.8	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22.4	20.4	30.8	34.6	
	독일국채 10년물	2.359%	-1.2	-2.7	-0.5	
	호주국채 10년물	4.403%	4.4	2.3	3.5	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지난 주말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 예고 등으로 부각된
 인플레 우려 속 약세 출발.
- 야당 대표 추경 발언도 소화.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제안함
- 외국인은 점차 3 10년 국채선물 순매수 규모 확대. 이에 단기물은 약세폭 축소, 장기물은 강세 전환하며 마감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
- 추가 관세 계획 대기 속 경계감 고조. 트럼프,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25% 관세 부과 계획은 월요일, 화요일이나 수요일은 상호관세 구체적 내용 발표 및 즉시 발효할 것을 밝힌 바 있음
- ▶ 뉴욕 연은이 발표하는 5년 기대 인플레, 작년 5월 이후 8개월만에 최대치 기록
- 금일 미국 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, 한국 2월 1~10 일 수출입 발표 예정. 일본은 개천절로 휴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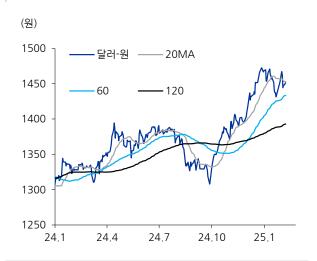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 (단위: %, \$)							
		2/10일	1D	1W	YTD		
한율	원/달러	1,451.20	0.2%	-1.1%	-1.4%		
	달러지수	108,32	0.2%	-0.5%	-0.1%		
	달러/유로	1.031	-0.2%	0.1%	-0.5%		
	위안/달러(역외)	7.31	0.1%	-0.0%	-0.3%		
	엔/달러	151.95	0.4%	-1.8%	-3.3%		
	달러/파운드	1.237	-0.3%	-0.3%	-1.2%		
	헤알/달러	5.79	-0.4%	-0.4%	-6.4%		
상품	WTI 근월물(\$)	72.32	1.9%	-1.1%	0.8%		
	금 현물(\$)	2,907.53	1.6%	3.2%	10.8%		
	구리 3개월물(\$)	9,453.00	0.5%	3.9%	7.8%		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3.40원 상승한 1,451.2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51.80원 마감.
- 주말 간 미국 고용 호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및 철강/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위험 선호 심리 후퇴. 달러-원은 +9.70원 상승한 1,457.40 원에 출발.
- 그러나 달러-원은 장초반을 고점으로 하락 흐름. 상호관 세의 경우 내용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 고 1,450원대 후반에서 고점 인식 속 네고 물량이 대거 나왔음. 장초반 큰 폭 하락하던 국내증시도 보합권에서 마감.

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트럼프 관세 부과 여파에 상승.
- 트럼프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로 미국에 철강은 수출하는 영국, 캐나다, 일본 등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달러 대비 약세.
- 라가르드 ECB 총재는 무역 마찰이 유로존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불확실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. 반면 미국 내에서는 자국 철강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US 스틸 등 주요 철강업체 주가는 상승하는 미국 예외주의 흐름.
- 한편 지난 주말 미시간대 소비자 조사에 이어 전일 발표된 뉴욕 연은 소비자 조사에서는 1-3년 기대인플레는 변동이 없었으나 5년 기대가 +0.3%p 상승.